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웃시아 왕의 실패는 어디에서 기인하였습니까?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하늘의 보좌가 땅의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제 6장은 그 심판이 가시화 되는 국면으로 나아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늘의 그림을 드러내 보이시며, 그를 하나님의 경영에 초대하십니다.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웃시야 왕은 십육 세에 왕위에 오른 후에 무려 52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은 왕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셔서, 웃시야 왕이 인근 나라들에게까지 명성을 떨치면서 그야말로 부국강병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대하 26:1-15).

그러나 웃시야는 교만하여져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믿고 방자히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왕을 징계하셔서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왕은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넘기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대하 26:16-23).

웃시야는 이스라엘 왕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권력,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은 결국 패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향력과 힘이 교회를 좌지우지 할 때, 그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웃시야의 죽음은 유다의 전성기가 끝나고 나라가 쇠락할 것을 암시하는 전조와 같았습니다. 왕의 최악은 유다 백성들의 교만한 패역함을 대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의 어둔 그늘이 온 나라에 서서히 드리워지는 그 엄중한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2.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이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모았습니다. 왕의 보좌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웃시야 왕도 그 보좌에서 온 나라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왕좌보다 더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는 온 땅의 왕이신 주님께서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 보좌에서 흘러내린 웃자락은 성전을 충만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통치가 땅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는 세상의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하늘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사야는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목하시는 자리, 그의 통치를 행사하시는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둘러싼 스랍들은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창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주님의 웃자락과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연기가 성전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랍들은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퍼져 나갈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통해 흘러 나와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되는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정계와 재계에 혹은 미디어에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된 공동체, 교회에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주목하시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보도록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